

폐경기 중년여성의 폐경단계에 따른 건강지각, 신체상, 성기능 및 우울

김 정 희¹⁾ · 문 현 숙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폐경기가 시작되는 45세 이상 여성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이들의 인구가 1,179만 명으로 전체 여성인구의 45.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2) 폐경기 여성에 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울은 폐경기 여성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며 주요한 폐경증상이다(Shin, 1999). 호르몬이 폐경 여성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논의되고 있으나 심리적 요인과 생활방식, 신체상, 대인관계, 역할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도 폐경기 여성에 우울을 예측하는데 무시될 수 없는 요소로 확인되고 있다(Deeks, 2002). 폐경이 시작되는 한국의 중년기 여성은 같은 중년시기의 남성에 비해 우울이 2-3배 정도 많이 발생되며 전체 20-30%정도가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n, 1999). 실제로 폐경기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Deeks & McCabe, 2004) 폐경기 여성은 이전 시기에 비해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폐경기는 폐경주변기와 폐경후기로 나뉘어 질 수 있는데 폐경주변기는 최근 3-11개월의 기간동안 월경주기의 빈도, 기간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이며 폐경후기는 12개월 이상 월경이 멈춘 시기로 정의된다(Avis & Mckinaly, 1995). 갑작스런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는 폐경주변기 여성과 호르몬 변화가 크지 않으며 노화가

진행되어 가는 폐경후기 여성의 우울정도와 그 영향 요인들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국내 여성을 대상으로 이를 직접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어 폐경기의 중요한 건강문제인 우울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Miller, Cambell, Farran, Kauffman과 Davis(1995)에 의하면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더 우울하다고 보고하였다. 폐경후기 여성은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와 질병으로 건강증상의 호소가 많으며(Park, Oh, & Yeom, 2001) 폐경주변기에 있는 여성은 갑작스런 에스트로겐의 저하로 인해 다양한 신체증상을 경험하게 된다(Rasgon, Shelton, & Halbreich, 2005). 폐경기 시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건강상의 변화는 여성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져오며 정서적으로는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asgon, Shelton, & Halbreich, 2005).

여성은 폐경과 함께 신체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특히, 호르몬 변화로 인해 지방이 체간으로 축적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며(Kim, 2003), 노화로 인해 신체 변화, 즉 머리가 희어지기 시작하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 등을 여성들은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Lee, 2004). 이러한 신체변화로 인해 이전에 받아들였던 신체상과 현재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정서적 긴장이 높아지고 그와 함께 우울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Wassennr, 1982).

폐경의 증상으로 성생활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Kim, Bae, Moon과 Kang(2005)은 성교를 하지 않는 여성이 더 우울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는 성기능이 우울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기능이란 성적욕구 및 흥분에서 시작되어

주요어 : 폐경, 건강, 신체상, 성기능, 우울

1)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대학 박사과정

투고일: 2006년 2월 9일 심사완료일: 2006년 4월 13일

성적 자극이 지속되면 절정에 도달하고 해소기에 신체가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연속적인 반응으로 흥분기, 흥분고조기, 절정기, 해소기로 구분되는 생리적 과정이다(Rosen et al., 2000). 여성의 성기능은 질분비, 통증과 같은 신체적 반응과 성적 만족감을 포함하는데 폐경 후 여성은 질분비가 감소하게 되고, 성교시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게 되며 성적 흥분과 절정감 도달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Park, 2000). 또한 여성의 성기능은 남성과 달리 성호르몬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것으로(Berman, Berman, & Goldstein, 1999) 알려져 있어 호르몬 변화와 불규칙한 폐경주변기와 비교적 안정된 폐경후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여성의 성기능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고 있어 성기능에 관한 국내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성기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폐경주변기와 폐경후기 여성의 성기능에 차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지각, 신체상, 성기능은 폐경기 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폐경단계에 따라 파악하여 폐경기 중년 여성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폐경기 중년 여성의 건강지각, 신체상, 성기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폐경단계에 따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폐경단계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관련 특성을 확인한다.
- 폐경단계에 따른 대상자의 건강지각, 신체상, 성기능, 우울 정도를 확인한다.
- 폐경단계에 따른 대상자의 건강지각, 신체상, 성기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용어 정의

- 건강 지각: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말하며 (Ware & Shouboune, 1992) 본 연구에서는 Ware와 Shouboune(1992)가 개발하고 Koh, Chang, Kang, Cha와 Park(1997)이 번역한 36개 문항의 Short Form(SF-36) Health Survey Questionnaire 중 일반적 건강항목 5문항으로 측정된 점수이다.
- 신체상: 개인이 자신의 신체외모, 신체기능, 신체상태에 대해 가지는 지각이나 태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Jang(1982)이 신체상 의미척도를 수정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여성 성기능 : 성적 자극에 대한 여성의 성반응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 요소를 포함하며(Rosen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Rosen 등(2000)이 개발하고 Yoo(2003)가 번역한 여성 성기능지수(FSFI: Female Sexual Function Index)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우울: 정상적인 기분변화에서 병적인 상태에 이르는 근심, 침울감, 무기력감 및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상태(Battle, 1978)로 본 연구에서는 Radloff(1977)가 개발하고 Chon과 Rhee(1992)가 번안한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로 측정된 값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년 여성의 폐경단계에 따른 건강지각, 신체상, 성기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45세에서 65세의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단,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중추신경이나 척추손상, 대장수술의 과거력이 있거나, 인공 폐경된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사전에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18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 6문항, 성관련 10문항, 건강지각 5문항, 우울 20문항, 신체상 15문항, 성기능 19문항으로 총 7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건강지각

Ware와 Sherbourne(1992)이 개발한 36개 문항의 Short Form (SF-36) Health Survey Questionnaire 중 일반적 건강항목 5문항을 사용하였다. 최저 1점, 최고 5점으로 평가하였고 이중 1, 3, 5번 문항은 가중치를 주어 합해진 5문항을 합산하여 100점으로 환산하였다. 일반 건강항목의 점수가 낮을수록 자신의 건강이 나쁘거나 앞으로 나빠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Koh 등(199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4 였으며, 본 연구에서

의 Cronbach's α 는 .76이었다.

● 신체상

신체상의미 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Jang(1982)이 수정한 신체상 도구를 사용하였다. “내자신의 신체는?” 개념으로 의미구조를 파악하여, 15쌍의 상반된 어휘군을 선택, Likert type의 5점 척도로 최저 15점, 최고 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상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83으로 나타났다.

● 성기능

성기능 측정도구로 Rosen 등(2000)이 개발한 FSFI(Female Sexual Function Index)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성욕구 영역 2문항, 성흥분 영역 4문항, 질분비 영역 4문항, 절정감 영역 3문항, 만족감 영역 3문항, 성통증 영역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9문항으로 6점 등간 척도이다. 성기능에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였으며 Rosen 등(2000)의 제시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였고 점수가 낮을수록 성기능이 감소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Rosen 등(200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0.96으로 나타났다.

● 우울

본 연구의 우울 측정 도구인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는 Radloff(1977)가 개발한 자가 보고형으로 지난 일주일동안 우울 증상의 빈도를 기록하는 20문항의 질문지로 되어있다. 긍정적인 감정을 측정하는 문항은 역산하였고 각 문항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우울을 경험했는지에 따라 측정범위는 총 0-6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n과 Rhee(199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87로 나타났다.

자료수집 기간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4년 4월부터 5월까지 서울, 부산, 춘천에 소재한 보건소와 문화센터를 방문한 지역사회 거주 폐경기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응답을 원치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주었다. 수집된 총 193부의 설문지중 내용이 불완전한 설문지 11부를 제외한 총 182부가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1.0을 이용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05를 기준으로 하였다.

- 대상자의 폐경단계에 따른 일반적 특성, 성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chi-square test를 실시한다.
- 대상자의 폐경단계에 따른 건강지각, 신체상, 성기능, 우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다.
- 대상자의 폐경단계에 따른 건강지각, 신체상, 성기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한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폐경기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중년 여성에게 적용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연구 결과

폐경단계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 성관련 특성

대상자의 폐경단계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 성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Table 2>.

폐경주변기 여성의 연령은 평균 48.5세였으며 폐경후기 여성의 연령은 55.6세로 폐경후기 여성의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폐경주변기 여성은 40대가 62.2%(46명), 50대가 37.8%(50명)이었으며, 폐경후기 여성은 40대가 11%(11명), 50대가 62%(67명), 60대가 26.9%(29명)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두 집단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폐경주변기 여성의 경우 대졸자가 35.3%, 초등학교 졸업자는 10.8%였으나 폐경후기 여성은 대졸이상이 25%, 초등학교 졸업자가 20.4%였다. 종교에서 두 집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폐경주변기 여성은 천주교가 43.2%로 가장 많았으나, 폐경후기 여성은 불교가 35%로 가장 많았고, 무교와 기독교가 19.4%로 폐경주변기 여성에 비해 많은 분포를 보였다. 직업이 있는 경우가 폐경주변기와 폐경후기 각각 25.7%, 21.3%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수입은 폐경주변기 여성의 경우 101만원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폐경후기 여성은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0.4%를 차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폐경후기 여성의 26.9%가 고혈압을 갖고 있었으며, 요실금은 13.0%, 골다공증은 88.0%, 그 외 질환은 12.0%로 폐경주변기 여성보다 질환이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in subjects by menopausal stage

(N=182)

| Characteristics | Category | perimenopause (n=74) | | postmenopasue (n=108) | | t or χ^2 | p |
|-------------------------------|----------------------|-------------------------|----------|--------------------------|--------|---------------|------|
| | | n(%) | n(%) | n(%) | n(%) | | |
| Age(year) | | 48.55±4.04 | | 55.64±5.10 | | -9.958 | .000 |
| Educational level | Elementary school | 8(10.8) | | 22(20.4) | | 6.874 | .076 |
| | Middle school | 18(24.3) | | 36(33.3) | | | |
| | High school | 19(25.7) | | 23(25.0) | | | |
| | College | 29(35.2) | | 27(25.0) | | | |
| Religion | None | 7(9.5) | | 21(19.4) | | 9.752 | .045 |
| | Protestant | 12(16.2) | | 21(19.4) | | | |
| | Buddhism | 23(31.1) | | 38(35.2) | | | |
| | Catholic | 32(43.2) | | 26(24.1) | | | |
| | Others | 0(0.0) | | 2(1.9) | | | |
| Occupation | No | 25(74.3) | | 85(78.7) | | | .491 |
| | Yes | 19(75.7) | | 23(21.3) | | | |
| Income (ten thousands won) | ≤100 | 8(10.8) | | 22(20.4) | | 8.039 | .090 |
| | 101-200 | 18(23.3) | | 36(33.4) | | | |
| | 201-300 | 19(23.7) | | 23(21.3) | | | |
| | 301-400 | 17(23.0) | | 12(11.2) | | | |
| | ≥401 | 12(16.2) | | 15(13.9) | | | |
| Disease | Hypertension | yes | 3(4.1) | 29(26.9) | 15.750 | .000 | |
| | | no | 71(95.9) | 79(73.1) | | | |
| | Heart disease | yes | 1(1.4) | 4(3.7) | .909 | .323 | |
| | | no | 73(98.6) | 104(96.4) | | | |
| | Urinary incontineece | yes | 6(8.1) | 14(13.0) | 1.058 | .304 | |
| | | no | 68(91.9) | 94(87.0) | | | |
| | Osteoporesis | yes | 4(5.4) | 13(12.0) | 2.281 | .104 | |
| | | no | 71(94.6) | 95(88.0) | | | |
| | Others | yes | 13(17.6) | 13(12.0) | 1.097 | .295 | |
| | | no | 61(82.4) | 95(88.0) | | | |

<Table 2> Characteristics related to sexuality in subjects by menopausal stage

(N=182)

| Characteristics | Category | perimenopause (n=74) | | postmenopasue (n=108) | | t or χ^2 | p |
|------------------------------------|---------------|-------------------------|------|--------------------------|------|---------------|--------|
| | | n(%) | n(%) | n(%) | n(%) | | |
| Marital status | Married | 71(95.9) | | 97(89.8) | | 8.410 | .038 |
| | Widowed | 1(1.4) | | 8(7.4) | | | |
| | Divorsed | 2(2.7) | | 3(2.8) | | | |
| Sexual partner's age (year) | | 50.86±6.17 | | 59.47±5.95 | | -9.595 | .000 |
| Perceived partner's sexual problem | Yes | 14(18.9) | | 25(24.3) | | | -2.884 |
| | No | 60(81.1) | | 78(75.7) | | | |
| | No response | 0(0.0) | | 2(1.9) | | | |
| Frequency of sexual intercourse | Monthly | 21(28.4) | | 33(32.4) | | 11.344 | .203 |
| | 2-3 for month | 27(36.5) | | 24(22.9) | | | |
| | Weekly | 12(16.2) | | 20(19.0) | | | |
| | 2-3 for week | 6(8.1) | | 2(1.9) | | | |
| | Not try | 8(10.8) | | 26(24.8) | | | |

성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두 집단의 모두 대부분이 기혼상태였으나, 폐경후기 여성은 7.4%가 사별한 여성으로 폐경주변기 여성에 비해 사별한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나이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폐경주변기 여성의

남편은 평균 50.8세로 폐경후기 여성 남편의 평균 나이 59.4세에 비해 적었으나 부인이 느끼는 남편의 성적 문제에 대한 인식은 두 집단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교 횟수에서도 두 집단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달에 1-3회

<Table 3> Health perception, body image, sexual function and depression by menopausal stage (N=182)

| | Possible range | Perimenopause (n=74) | Postmenopausal (n=108) | t | p |
|-------------------|----------------|----------------------|------------------------|-------|------|
| | | Mean±SD | Mean±SD | | |
| Health perception | 5 - 100 | 54.86 ± 21.65 | 53.44 ± 11.81 | .552 | .602 |
| Body image | 15 - 75 | 53.44 ± 10.93 | 52.25 ± 9.73 | .777 | .438 |
| Sexual function | 1.2- 36 | 22.18 ± 6.28 | 18.52 ± 7.53 | 3.390 | .001 |
| total | 1.2- 6.0 | 2.86 ± 1.00 | 2.63 ± 1.02 | 1.145 | .148 |
| desire | 0 - 6.0 | 3.21 ± 1.16 | 2.68 ± 1.36 | 2.763 | .006 |
| arousal | 0 - 6.0 | 4.05 ± 1.49 | 3.11 ± 1.81 | 3.787 | .000 |
| lubricant | 0 - 6.0 | 3.72 ± 1.46 | 2.95 ± 1.71 | 3.155 | .002 |
| orgasm | 0 - 6.0 | 3.67 ± 1.28 | 3.22 ± 1.33 | 2.209 | .029 |
| satisfaction | 0 - 6.0 | 4.48 ± 1.26 | 3.84 ± 1.67 | 2.949 | .004 |
| pain | 0 - 6.0 | 4.48 ± 1.26 | 3.84 ± 1.67 | 2.949 | .004 |
| Depression | 0 - 60 | 17.47 ± 9.13 | 18.11 ± 9.48 | -.449 | .654 |

성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폐경후기 여성의 24.8%는 성교를 시도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폐경주변기 여성(10.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경단계에 따른 건강지각, 신체상, 성기능, 우울

폐경후기 여성은 폐경주변기 여성에 비해 성기능이 낮았으며, 성흥분, 질분비, 절정감, 만족감이 폐경주변기 여성에 비해 낮았다. 성기능 영역중 성욕은 두 집단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지각, 신체상, 우울은 폐경단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경주변기 여성과 폐경후기 여성은 자신의 건강을 보통정도로 평가하였으며, 신체상은 긍정적인 편이었다. 대상자의 우울 평균점수는 모두 우울기준 점수인 16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폐경단계에 따른 건강지각, 신체상, 성기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폐경주변기 여성에게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beta=-1.88$, $p=.000$)과 성기능($\beta=-.473$, $p=.002$)이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4.8%였다. 신체상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폐경후기 여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beta=-.098$, $p=.047$)과 신체상($\beta=-.348$, $p=.000$)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21.7%의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 폐경후기 여성의 우울에 성기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4> The Influence of health perception, body image, sexual function on depression in perimenopausal women (n=74)

| Independent variables | R ² | β | F | p |
|-----------------------|----------------|---------|--------|------|
| Perceived health | .348 | -.188 | 18.418 | .000 |
| Sexual function | | -.473 | | .002 |

<Table 5> The Influence of health perception, body image, sexual function on depression in postmenopausal women (n=108)

| Independent variables | R ² | β | F | p |
|-----------------------|----------------|---------|--------|------|
| Perceived health | .217 | .098 | 13.449 | .047 |
| Body image | | -.348 | | .000 |

논 의

본 연구는 폐경기 중년 여성의 건강지각, 신체상, 성기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폐경단계에 따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폐경주변기와 폐경기 여성의 우울은 차이가 없었으나 두 집단 모두 경중의 우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폐경기 우울이 중년 여성의 주요 건강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Ha(2001)의 연구에서도 폐경 주변기와 폐경후기 여성의 정서적 안녕감, 안정, 신체적 안녕, 활력감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여, 두 집단간에 정서적인 차이는 크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두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나 폐경주변기 여성의 경우 건강지각과 성기능이, 후기여성은 건강지각과 신체상이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변수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폐경주변기 여성과 폐경후기 여성의 건강지각 점수는 각각 54.86점, 53.44점으로, 자신의 건강을 보통정도로 평가하였으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건강지각점수가 58.1점(Koh et al., 1997)인 것을 고려할 때, 폐경주변기와 폐경후기 중년여성은 직장인보다도 자신의 건강을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ngel(1987)는 폐경후기로 갈수록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폐경주변기 여성의 고혈압 유병율은 4.1%였으나 폐경후기 여성은 26.9%로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나 폐경 후 나이가 들수록 노화로 인한 질병이나 신체 변화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sinowo(2003)는 폐경주변기 여성은 폐경후기 여성보다 건강을 좋지 않다고 평가하며 폐경에 대한 지식도 폐경후기 여성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최근 중년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매체와 의료기관을 통해 폐경에 대한 정보가 풍부해지고 있고 본 연구대상자가 보건소 문화센터를 방문하는 여성임을 고려할 때, 폐경에 대한 지식정도는 두 집단에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우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Miller et al., 1995)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건강지각은 폐경주변기와 폐경후기 여성의 우울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폐경기 여성의 우울을 중재를 위해 건강사정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체상은 각각 두 집단 모두 보통 수준이었으며, 폐경후기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가정에서 주부나 어머니로서의 역할로 인해 자신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못하나 폐경기 이후 시기에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여자로서의 몸을 돌아보게 되된다(Lee, 2004). 실제로 폐경이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장이 작고 총체지방량이 낮아지며(Kim, 2003) 이러한 변화는 몸에 좋은 것과 체육시설에 대한 관심, 몸을 가꾸기 위한 운동, 성형, 화장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An, 2001). 이 시기에 나타나는 신체변화로 인해 여성은 자신을 재평가하며 (Deeks, 2002) 이러한 평가는 폐경기 후기 중년여성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폐경후기 중년 여성의 심리적 건강을 위해 신체 변화를 정확히 인식시키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폐경주변기와 후기 여성의 성기능 점수는 각각 22.18점, 18.52점으로 모두 미국의 성기능 장애 여성(평균 연령 40.5세)의 평균 19.2점(Rosen et al., 2000)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여성의 성기능문제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여성의 적극적인 성적 행동을 금기시 하는 문화는 성행위시 소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여성의 성기능에 영향을 준다(Lion, 1982). 한국 중년 여성의 74%가 성생활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이중 30.4%만이 성생활에 만족해 함(Kim, 2000)을 고려할 때 한국의 폐경주변기, 폐경후기 여성의 성기능 점수가 대체로 낮을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성기능은 여성과 배우자의 나이와 관련이 있는데(Kim et al., 2005) 연구 결과에서도 대상자와 배우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은 폐경후기 여성은 폐경주변기 여성에 비해 성기능이 낮았다. 또한 질경련과 성교 통증은 신체생리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폐경기 시기의 에스트로겐의 결핍은 질벽의 위축과 질분비물 감소를 유발하며, 성교통증과 불편감을 유발하며, 에스트라디올은 말초신경이나 중추신경의 세포에 작용하여 신경전도에 영향을 주어 음핵과 질의 진동각이나 질내압에 변화를 유발하여 성적인 만족감과 절정감에 영향을 주게 된다(Park, 2000). 그 결과 폐경후기 여성은 성교 과정에서의 반응인 성흥분, 질분비, 절정감, 만족감 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성기능의 하부 요인 중 하나인 성욕은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성욕은 인지능력과 분위기 등에 영향 받으며(Kim & Cha, 1999) 40대와 50대 여성의 성적 욕구는 증가하는 것으로(Lion, 1982)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생리적인 차이에 근거분류한 폐경주변기와 폐경후기단계 따라서는 성욕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행위시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의욕저하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활력을 넣어 줄 수 있고(Lion, 1982), Kim 등(2005)의 연구에서 성기능이 낮을수록 우울한 것으로 나타나, 폐경주변기 여성에 있어서 성기능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폐경후기 여성의 성기능은 우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여성이 월경이 완전히 없어지면 여성으로서 생산능력을 잃었다고 느끼며, 사회적으로도 폐경 여성은 성행위와 성관계에 관심이 없다고 인식되어 있다(Lion, 1982). 이러한 성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인식 때문에 폐경후기 여성의 성기능은 우울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는 폐경후기 중년 여성의 성기능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성지식과 성정보는 개방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부부간 성관련 의사소통과 성적 자기주장을 증가시키므로(Lion, 1982), 폐경주변기와 폐경이후에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변화를 이해하여 폐경을 계기로 성에 대한 재인식을 하게함으로써 만족스런 성생활을 영위해야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폐경기 중년 여성의 폐경단계에 따른 건강지각, 신체상, 성기능, 우울을 비교하고, 건강지각, 신체상, 성기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폐경단계에 따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2004년 4월부터 5월까지 서울, 부산, 춘천에 소재한 보건소, 문화센터를 방문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45-65세 폐경기 중년 여성 중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18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유의 수준은 .05를 기준으로 SPSS/WIN 11.0을 이용하였고,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chi-square test, t-test, stepwis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폐경주변기와 폐경후기 중년 여성의 건강지각, 신체상, 우울은 차이가 없었으나 폐경후기 여성이 폐경주변기 여성에 비해 성기능이 낮았다. 폐경주변기 중년 여성의 건강지각, 성기능이 34.8%의 설명력을 갖고 우울에 영향을 주었으나, 폐경후기 중년 여성에게는 건강지각, 신체상이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21.7%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폐경기 중년여성의 우울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건강사정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폐경후기 중년 여성에게는 신체 변화를 정확히 인식시키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성기능을 유지하고 만족스런 성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폐경주변기와 폐경이후에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변화를 이해하여 폐경을 계기로 성에 대한 재인식을 하거나 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연구는 폐경과 관련된 지식이나 적응 등의 심리적 요소들을 이해하고, 이들 변수를 고려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성기능에 관해서도 중년 여성의 성기능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n, H. O. (2001). *Women's body and women's age*. Seoul : Ddohanaeimunhwa.
- Avis, N. E., & McKinlay, S. M. (1995). The massachusetts women's health study: an epidemiologic investigation of the menopause. *J Am Med Womens Assoc*, 50, 45-49.
- Battle, J. (1978).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Psychol Rep*, 42, 745-746.
- Berman J. R., Berman, I., & Goldstein, I. (1999). Female sexual dysfunction: incidence, pathophysiology, evaluation and treatment options. *Urology*, 54, 385-391.
- Chon, J. S. (1999). Depression in women. *Eldery Psych Med*, 3(2), 129-139.
- Chon, K. K., & Rhee, M. K. (1992). Preliminary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CES-D. *Korean J Clin Psychol*, 11(1), 65-76.
- Deeks, A. (2002). Sexual desire: menopause and its psychological impact. *Aust Fam Physicia*, 31(5), 433-439.
- Deeks, A. A., & McCabe, M. P. (2004). Well-being and menopause: an investigation of purpose in life, self-acceptance and social role in premenopausal, perimenopausal and postmenopausal women. *Qual Life Res*, 13(2), 389-398.
- Engel, N. S. (1987). Menopausal stage, current life change, attitude toward women's roles, and perceived health status. *Nurs Res*, 36(6), 353-357.
- Ha, J. Y. (2001). *A study on the menopausal symptoms and quality of life in middle age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Jang, H. S. (1982). A study of the influence of illness on body image and self concept specifically in children with asthma. *Korean Acad Nurs*, 12(2), 80-90.
- Kim, H. J. (2003). *Relationship between body composition and bone mineral density in postmenopausal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H. S. (2000). *A study on the lifestyle and health status of middle age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J. H., Bae, K. E., Moon, H. S., & Kang, H. I. (2005). The relationships among body image, depression and sexual function in postmenopausal women. *J Korean Acad Adult Nurs*, 17(2), 239-247.
- Kim, W. H., & Cha, Y. I. (1999). *Sexuality in middle age*. Pusan : Pusan University Press.
- Koh, S. B., Chang, S. J., Kang, M. G., Cha, B. S., & Park, J. K. (1997). Reliability and validity on measurement instrument for health status assessment in occupational workers. *Korean J Prev Med*, 30(2), 251-266.
- Lee, D. O. (2004). A study on women's preparation for senescence and health. *Korean J Women's Health Nurs*, 5(2), 139-161.
- Lion, E. M. (1982). *Human sexuality in nursing process*. New York : Wiley.
- Miller, B., Cambell, R. T., Farran, C. J., Kaufman, J. E. & Davis, C. (1995). Race, control, mastery and caregiver distress. *J Gerontol : Soc Sci*, 50, 374-382.
- National Statistic Office (2000). *Annual report on the population*.
- Osinowo. H. O. (2003). Psychosocial factors associated with perceived psychological health, perception of menopause and sexual satisfaction in menopause women and control. *West Afr J Med*, 22(3), 225-231.
- Park, C. S., Oh, J. A., & Yeoum, S. G. (2001). A study of symptom of health and fatigue-regulation behavior in middle-aged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7(4), 447-458.
- Park, N. C. (2000). Sexual dysfunction in menopause women. *Koearn J Androl*, 18(2), 99-104.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 Psychol Meas*, 1, 385-401.
- Rasgon, N., Shelton, S., & Halbreich, L. (2005). Perimenopausal mental disorders: epidemiology and phenomenology. *CNS Spectr*, 10(6), 417-418.
- Rosen, R., Brown, C., Heiman, J., Leiblum, S., Meston, C., Shabsigh, R., Ferguson, D., & D'agostino, R. Jr. (2000). The female sexual function Index(FSFI): a multi-dimensional self-report instrument for the assessment of female sexual function. *J Sex Marital Ther*, 26, 191-208.
- Shin, K. R. (1999). A study on depression among mid-aged women. *J Korean Acad Adult Nurs*, 11(4), 858-868.
- Wassenr, A. (1982). The impact of mutilating surgery or

trauma on body image. *Inte Nurs Rev*, 29(3), 86-90.
Ware, J. E., & Sherbourne, C. D. (1992). The MOS 36-item short-form health survey(SF-36); 1 conceptual framework and item selection. *Med Care*, 30, 473.

Yoo, H. S. (2003). *Predictors of female sexual dysfunct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Health Perception, Body Image, Sexual Function and Depression in Menopausal Women according to Menopausal Stages

Kim, Jung-Hee¹⁾ · Moon, Hyun-Sook¹⁾

1) 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health perception, body image and sexual function on depression according to the menopausal stage in Korean middle aged women. **Methods:** Subjects were 182 perimenopausal and postmenopausal women who had not received hormonal replacement therapy. A five-item General HealthShort Form (SF-36) Health Survey Questionnaire (Ware & Sherbourne, 1992) was used to measure health perception. Body image was measured Semantic Differential scale, CES-D was used to measure the level of depression, and sexual function was measured by FSFI. **Results:** The subjects rated their health as 'moderate', their body image as 'moderate, and level of depression as 'high'.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health perception, body image, and depression between perimenopausal and postmenopausal women. Postmenopausal women experienced lower levels of sexual function than perimenopausal women in sexual arousal, lubrication, orgasm, satisfaction, and pain. In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21.7% of variance in depression was shown to be perceived health and body image in postmenopausal women. However, in perimenopausal women, perceived health and sexual function explained 34.5% of variance in depression. **Conclus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nurses must consider the menopausal stage when counseling their patients.

Key words : Menopause, Health, Body image, Sexual function, Depression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Jung-Hee

College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el: 82-2-3277-3703 Fax: 82-2-3277-2850 E-mail: jhee90@hanmail.net